

朝鮮通信使와 『捷解新語』*

박재환**
jhpark7@kg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捷解新語』에 나타난 通信使의 日本訪問 |
| 2. 선행연구 | 3.1 著者 康遇聖의 日本訪問 |
| 2.1 倭學교육과 『捷解新語』 | 3.2. 通信使의 日本往還 |
| 2.2. 『捷解新語』의 성립 시기 및 체제 | 4. 마치며 |

主題語: 조선통신사(an envoy of the Chosun Dynasty), 일본방문(Visiting Japan), 강우성(Kang u-seong), 捷解新語(Chop Hae Sin O), 왜학교육(Japanese Education)

1. 들어가며

朝鮮時代に 事大交隣¹⁾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인 司譯院(1393年 設置)에서는 주로 주변국들의 언어교육과 교재편찬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의 지정학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필요 불가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 왕조의 대외 정책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司譯院에서 행해진 당시 외국어교육 중 倭學(일본어)의 주요 교재로 사용된 『捷解新語』와 그 내용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朝鮮通信使의 방일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역관 康遇聖이 『捷解新語』라는 문헌의 草稿를 만들고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자신의 통신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방문의 여러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추후 삽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책의 구성은 크게 대화체와 비대화체로 나눌 수 있으며 본문에 해당하는 대화체 부분은 다시 (A) 부산에서의 한·일 간의 왕래 교섭, (B) 朝鮮通信使의 일본방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당시 역관들의

* 이 논문은 2019년 교내 연구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전공 교수

1) 『通文館志』序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我東西接遼燕南隣島夷北界野人奧自箕子以來歷羅麗之世使命交通還往不絕及乎勝國有通文館 本朝有司驛院專掌事大交隣之事上下數千年間朝聘應待有能以紓患 (밀줄, 필자 첨부)

2) 정광(2002)『역학서연구』제이앤씨, pp.433-440

주된 활동이 부산의 왜관에서 교역과 관련된 역할과 통신사 수행이었기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실용적인 언어교육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捷解新語』における副詞について』(1992) 이후 『捷解新語』3종 - 原刊本(1676年刊), 改修本(1748年刊), 重刊本(1781年刊) - 에 나타난 副詞를 중심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의미·용법 변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일차적인 목적은 시대에 따른 副詞의 의미 변화를 규명하는 것에 있으나 단지 語史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통해 『捷解新語』3종의 자료적 신빙성을 높여 언어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한 (B)의 朝鮮通信使의 일본방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과 일본 간 교류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捷解新語』3종에 나타난 언어연구를 통해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선행연구

2.1 倭學교육과 『捷解新語』

倭學에 대한 교육은 신라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³⁾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伊呂波』(1492)의 刊行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通文館에 漢語만이 설치되었던 것과 다르게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주변국들의 언어교육에 관심을 갖고 司譯院을 설치한 것은 당시의 긴박하고 복잡한 대외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변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연구하여 상대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交隣의 방편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司譯院에는 漢語 이외에 蒙語倭語(1414년 設置), 女真(淸)語등이 개설되어 교육 및 교재편찬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왜구의 침몰, 女眞의 침입 등 당시의 대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司譯院에 있어서의 四學의 중요도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 초에 설치된 倭學은 肅宗8년(1682) 倭學偶語廳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經國大典』(1471)의 卷三 諸科條譯科初試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3) 전게서 2), pp.324-326

寫字 倭學 伊路波·消息·書格·老乞大·童子教·雜語·本草 議論·通信·鳩養物語·
庭訓往來·応永記·雜筆·富士

즉, 倭學교육에 있어 사용된 교재는 위에 제시한 『經國大典』의 기록과 같은 14종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伊路波』는 당시의 일본어를 仮名과 함께 제시한 것으로 기초적인 文字와音を 익히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 밖의 문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事典의 성격도 갖춘 『日本國語大辭典』(小學館刊)의 기술을 통해 몇몇 문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童子教：室町時代から廣くわが國に行われていた初等教訓書。全一卷 僧安然の作といわれるが未詳。儒教思想・仏教思想をともにした漢文体。五言三二〇句。江戸時代、寺子屋の教科書として著しく普及した

庭訓往來：室町前期の往来物。一卷。玄恵法印の作と伝えるが疑問。応永年間(1394~1428)頃の成立かという。往復書簡の形式を採り、武士の日常生活に關する諸事實、用語を素材とする初等教科書として編まれた。室町・江戸時代に廣く流布した。

위의 기술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도우지교(童子教)나 데이킨오라이(庭訓往來)등은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데라코야(寺子屋)등에서 교훈서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문체나 서간문 등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로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역관들을 비롯한 교역관계자들에게 있어 회화형식의 문헌이 아닌 교재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서간문이나 한문체로 된 문장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 효과가 적었을 것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通文館志」의 卷二 勸獎의 科擧条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初用伊路波消息書格.....(中略).....雜筆富士并十四冊,語多疎略不適用, 故康熙戊午專此用行用悉去前書.....

즉, 倭學教育에 주로 사용되던 十四冊은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대신 『捷解新語』를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라 추정된다. 「不適用」이라는 기술로 판단해 보면 당시의 언어사용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 교체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문헌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에서 필요로 했던 회화체 문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2.2 『捷解新語』의 성립 시기 및 체제

『捷解新語』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언급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森田武(1955), 大友信一(1957), 中村榮孝(1961)등의 論이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성립 시기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本節에서는 森田의 『捷解新語』의 구성분석을 중심으로 각자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森田는 『捷解新語』 解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1) 對話体로 쓰여진것

(a) 釜山에서 朝鮮日本 兩國 役人間의 来往交渉을 内容으로 하는 것

..... 卷一·二·三·四 및 卷九前半

(b) 朝鮮使節의 日本訪問을 内容으로 하는 것

..... 卷五·六·七·八

(2) 對話体로 쓰여지지 않은 것

(c) 日本의 地名 卷九後半

(d) 書簡文(候文体) 卷十

森田는(a)(c)(d)의 세 부분은 1624-1632년 사이에 성립했고, (b)는 1625-1636년 사이에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大友는 (a)(c)(d)의 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b)는 1636-1643년 사이에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中村는 (a)-(d)모두 1636년 이후 성립했으나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친 추가, 수정 등의 작업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후 李元植(1984)에 의해 다소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성립 시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李元植은 선행연구 -특히 中村의- 에서 밝혀진 대로 저자 康遇聖의 제1차(1617) 使行 직후부터 草稿를 쓰기 시작해 제2차(1624), 제3차(1636) 使行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사항을 추가해 가면서 수정 보완해 1636년 이후 성립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역원에 들어와 일본어를 가르치던 康遇聖이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재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껴 譯官(上通事·上判事)으로 訪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추가 작업을 통해 완성시켜 갔으며 1677년에 이르러 완성본이 출간된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자 康遇聖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通文館志」(卷七·人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康遇聖, 晉州人也, 壬辰被擄十年乃還, 熟諳倭俗且善其語, 嘗以國典所載倭語冊子語多疎略乃設為館倭接待信使酬酢之說彙作十卷名曰捷解新語. 各樣節目無不詳備, 康熙康戊陽坡鄭相國啓請鑄字印布, 自戊午後專以此書行用於科試(略) 凡再信使, 五任釜山訓導官至嘉善.

또한, 「譯科榜目」에는 그가 「辛巳生」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정리해 보면 그는 1581년(辛巳)에 출생하여 임진왜란 때에 열두 살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가 십 년간을 일본에서 보낸 후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 1609년의 增廣別試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게 된다. 그는 일본의 풍속에 밝으며 또한 일본어를 잘 구사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倭學 관련 교재가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알고 자신이 부산 왜관에서 일본 측 送使를 맞이했던 경험과 통신사 수행의 경험을 살려 역관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집필한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10년을 넘게 체류하다 귀국한 28세 때인 1609년에 增廣別試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음 수행에 나선 1617년은 康遇聖이 46세로 당시의 연령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나이였으며 1636년은 65세이기에 그 이후에 방대한 책을 저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간본 『捷解新語』의 간행이 1676년이라는 하나 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책의 많은 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1617년에서 1624년 사이에 일부 완성되고 1624년 이후 수행의 경험을 살려 본문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여러 학설 중 李元植의 說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10권 중 9권, 10권은 私談과 서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부록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捷解新語』는 「館倭接待」와 「信使酬酢」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부산 왜관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일본 각지의 지명 소개 및 서간문으로 구성되어있다.

필자는 康遇聖의 일본어 습득 시기에 주목하고 싶다. 다시 말해 그가 일본어와 접하게 된 것은 16세기 말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고대어로부터 근대어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일본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크며 또한 같은 내용을 약 백여 년 사이에 두 번에 걸쳐 개정했다는 것이 그 자료적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朝鮮通信使의 방일 기록 부분을 바탕으로 구성된 5·8권의 내용을 검토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된 언어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5·8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改修本の節目은 책의 내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改修本이 만들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로 는 제6차 방문(1655)이 끝나고 167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原刊本の 「句絶段落多不分明」⁴⁾이라는 결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중간에 모여져

4) 『改修捷解新語』凡例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있던 譯註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맞춰 「便讀誦」을 껴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改修本에서는 寫字와 講書중에서 後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어의 각 해당 부분을 첫머리뿐만 아니라 끝까지 일치시킨 것은 구분을 불분명하게 한 모순을 낳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그라미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 완벽한 講書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重刊本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寫字에 관련된 글자체도 改修本까지 답습해 오던 것을 모두 고쳤다. 原刊本의 체재 개수작업은 우선 改修本에서 講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미완의 부분을 중간본에서 재검토하여 제2의 개수작업이 행해 졌으며 아울러 寫字 쪽에도 전면적인 개수작업을 통하여 구체제를 일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捷解新語』에 나타난 通信使節의 日本訪問

3.1 著者 康遇聖의 日本訪問

이번 章에서는 『捷解新語』의 본문 내용 중 通信使의 일본방문의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진 5-8권의 언어 사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捷解新語』는 朝鮮通信使와 司駟院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문헌일 뿐만 아니라 언어 연구자료로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 개정한 것은 凡例의 기록처럼 시간 경과에 의한 사용 언어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크고 또한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표현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의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연구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구어체로 쓰였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原刊本의 경우 중세 말의 일본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捷解新語』3종의 대조를 통해 副詞나 존경어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나 어법, 방일 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朝鮮通信使의 방일 과정과 『捷解新語』의 기록에 관한 상관관계는 성립 시기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확인·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방일 내용을 통해 교류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집권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한 조선과의 국교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對馬藩의 절박한 사정 등에 의해⁵⁾ 재개된 12번의 朝鮮通信使 방문 중 저자 康遇聖의 3차례에 걸친 朝鮮通信使 방일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舊本只大書伊呂波旁書彼語註以我語故句絕段落多不分明今本則中書伊呂波左我音右彼語以便誦

5) 仲尾宏(1997)『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pp.30-31

<표1> 1-4차 방문 일시와 수행 역관 및 관련 기록

年 代			譯官	主要記錄 ⁶⁾
西曆	朝鮮/日本	干支		
1607	宣祖40/慶長12	丁未	金孝舜, 朴大根, 韓德南	慶暹[海槎錄]
1617	光海君9/元和3	丁巳	朴大根, 崔義吉, 康遇聖, 鄭純邦, 韓德南	吳允謙[東槎上日錄] 李景稷[扶桑錄]
1624	仁祖2/寬永元	甲子	朴大根, 李彥瑞, 洪喜南, 康遇聖	姜弘重[東槎錄]
1636	仁祖14/寬永13	丙子	洪喜南, 姜渭賓, 康遇聖, 李長生	任紱[丙子日本日記] 金世瀾[海槎錄] 黃戶[東槎錄]

<표2> 2-3차 방일 목적 및 명칭

年 代		訪日 目的	名稱
西曆	朝鮮/日本		
1617	光海君9/元和3	日本 統一 祝賀 및 捕虜 返還	回答兼刷還使
1624	仁祖2/寬永元	德川家光 襲封 祝賀 및 捕虜 返還	回答兼刷還使
1636	仁祖14/寬永13	泰平 祝賀 (日本 情勢 探索)	朝鮮通信使

3.2 通信使의 日本往還

이번節에서는 通信使의 일본방문을 내용으로 하는 네 권(5권~8권)의 내용에 대해 개수본의節目 기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 대화의 형식은 조선측(信使/訓導別差/譯官)이 [主]로 일본측(島主使者/對馬島主/筑前藩主/筑前使者/奉行/關白 등)이 [客]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제목을 통해 내용을 추측해 보고 몇몇 특징적인 표현을 통해 원간본과 改修本에 사용된 언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고대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原刊本과 근대어가 반영된 改修本과의 대조 용례를 중심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李進熙(1992)『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講談社學術文庫, p.32

7) 정승혜(2003)『조선후기 왜학서 연구』태학사, pp.239-242

8) 重刊本의 경우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改修本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 改修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重刊本에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조선통신사의 방일 루트⁹⁾

3.2.1 五卷의 대화 장면

5권은 크게 3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사 일행이 일본방문을 위해 부산에 도착해 있으며 對馬島主의 使者(迎聘參判使)가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해 동래부사 등과 나누는 대화로부터 시작되고 신사 일행이 대마도에 머물면서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장면은 아래와 같다.

- | |
|--|
| 1. 信使探候船(信使가 일본의 배를 탐문하는 장면)
1-1. 信使 일행의 출발 일정을 알기 위해 부산에 도착한 島主 使者와의 대화
1-2. 동래부사의 장계에 대한 답신이 오지 않았음을 전달하는 대화
1-3. 장계에 대한 회답이 왔음을 통보하는 대화
1-4. 날씨 관련 대화
1-5. 信使 일행 부산 출발 |
| 2. 信使到馬島(信使가 對馬島에 도착하는 장면)
2-1. 對馬島 첫 기착지에서 島主 使者가 信使를 맞이하면서 나누는 대화
2-2. 府中 포구에서 島主가 신사를 맞이하면서 나누는 대화
2-3. 府中 숙소에서 島主 使者의 문안 |
| 3. 請改小童衣服(어린이의 의복을 다시 청하는 장면)
3-1. 三使 小童에게 옷을 입혀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3-2. 小童의 옷과 관련한 대화 |

위의 대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小童에게 겹옷을 입혀달라는 요청과 관련된 장면으로 당시의 양국의 문화 차이를 잘 나타낸 부분이라 생각한다. 다만 외국 사절에게 복장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시의 그림¹⁰⁾을 통해 조선식 복장을 한 소동

9) Yahoo 인터넷 자료

의 모습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겉옷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일본의 복식문화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에게 복식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나 기회가 된다면 추후 선행연구 결과 등 관련 기록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고대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예를 통해 당시의 언어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原) まつふねにめさしられ(5-1뒤)
(改) まつふねに御のりなされませい(5-2)

위의 예는 「まず船にお乗りになってくださいませ」의 의미로 原刊本에서는 「乗る」의 존경어로 사용되었던 「めす(召す)」를 사용하였는데 改修本에서는 「お乗りなさる」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改修本에서 [타다]의 의미로 「召す」가 사용된 예는 한 곳도 없으며 이는 18세기 중엽에는 이미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2) (原) いちにんひせんにてまかりもとろうほとに(5-3뒤, 4)
(改) いちにんひせんにてまかりかえりませうほとに(5-5)

위의 예는 당시 겸양어로 사용되었던 「罷り」의 복합어로 「一人飛船で帰るので」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으로 원간본의 「罷り戻る」가 당시 사용되었는지 사전의 표제어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내용상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原) さてわこのやうすわしらいんて(5-4뒤)
(改) さてわこのわけわそんしませいて(5-6뒤)

위의 예는 부정을 나타내는 「いで」의 용법으로 原刊本の 「いんて」에 대한 인정 여부가 原刊本の 자료적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풀 열쇠로 『古語大事典』(小學館)의 기술이 참고가 된다.

いで[接助](動詞・助動詞の未然形に付いて)...ないでの意を示す。
(用例省略)

【語誌】確例は室町時代に入ってからのもので、従来「いで」とされてきたそれ以前の若干の例

については、語形および資料の年代の面から再吟味がなされている。「いで」の成立について、橋本進吉は、平安時代以来打消に用いられた「...で」の発音が鼻濁音ndeで、そのnが母音iに転じたとし、吉田金彦は、打消の「...で」は「打消n系の語+て」の形によるもので、このn系語が退化して「い」に転じたとする。(いか、省略)

위의 내용에서 原刊本이 쓰여진 시기에는 「いんで」의 사용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原) しんすよりもいそかしられて(5-16뒤)

(改) さんしさまよりも御さいそくなされて(5-24뒤)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いそがす(急がす)」를 改修本에서 「催促」로 바꾼 것으로 한자 어투의 격식차린 표현으로의 개정인지 아니면 「急がす」가 사용되지 않게 되어서 교체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원간본의 표현이 당시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5) (原) つしまのかみのつかいすなわちまいて(5-19뒤)

(改) つしまのかみよりのつかみかさつそくまいりまして(5-28뒤)

위의 예는 이미 拙稿¹¹⁾에서 밝힌 바와 같이 改修本이 쓰여진 시기에는 「すなわち」가 「すぐに」「さつそく」 등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아서 교체된 것이다.

6) (原) これまでおちやれと申たほとに(5-21)

(改) これまで御されと申ましたほとに(5-31뒤)

위의 예는 「行く・来る」의 의미로 사용되던 존경어 「おちやる」가 개수본이 쓰여진 시기에는 이미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3.2.2 六卷의 대화 장면

6권은 세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對馬島 다음의 첫 기항지는 壱岐島로 판단되며 그곳에서 다시 향연을 하고자 하는 장면이다.

11) 拙稿(1993a) 「「すなはち」小考」『湘南文學』27輯

1. 信使與島主語(信使가 對馬島主와 대화하는 장면) 1-1. 信使와 對馬島主의 상견례에서 나누는 대화 1-2. 信使와 對馬島主가 下船宴 때 나누는 대화
2. 離馬島向江戸(對馬島를 떠나 에도(江戸)로 떠나는 장면) 2-1. 信使의 對馬島 출발 일정과 관련한 대화 2-2. 출발 전날의 出船을 통보하는 대화 2-3. 첫 기항지에 도착해서 나누는 대화
3. 島主請下陸歇(對馬島主가 信使에게 물에 내려 쉬기를 청하는 장면) 3-1. 중간 기항지에서 饗應을 행하기 위해 하선을 요청하는 대화

- 1) (原) しうしつあそはしられて(6-4뒤)
(改) しうしつ御なくさみなされて(6-6뒤)

위의 예는 「あそばす(遊ばす)」를 「なぐさむ(慰む)」로 바꾼 것인데 「終日お寛ぎなさって」의 의미로 언어의 변화에 의한 교체라기보다 표현의 교체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 2) (原) あれに御さて御ちやおこしめして(6-6)
(改) かはうえおいてなされて御ちやお御あかりなされまして(6-9)

위의 예는 「飲む」「食う」의 존경어인 「こしめす」를 「お上がりなさる」로 교체한 것으로 언어변화로 인한 개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改修本에서 세 번 사용된 것으로 보면 문장 전체가 격식 차린 말투로의 개정이라 판단된다.

- 3) (原) まことにしんしやく申たいけれとも(6-7)
(改) まことに御しき申たう御されとも(6-10/뒤)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しんしやく(斟酌)」를 改修本에서 「じぎ(辞宜)」로 바꾼 것인데 현대어의 「本当にご遠慮申し上げたい」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しんしやく(斟酌)」가 改修本이 쓰여졌던 18세기 중엽에는 사용되지 않아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改修本の 1권과 8권 등 다른 곳에서 사용된 예가 있어 언어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간본에 10개의 예가 나타나는데 비해 改修本에는 6예, 重刊本에는 1예로 축소된 것을 보면 [사양(하다)] 는 의미로는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日葡辞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Xinxacuシンシヤク(斟酌)招待してくれた人とか、何事かを進めてくれた人に対して、態度を表してする挨拶、または、ことわりや弁解

4) (原) 御さうのことく(6-13뒤)

(改) おおせくたされますたうり(6-19뒤)

위의 예는 「さう(左右)」가 「便り・知らせ」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改修本에서는 「おほす(仰ず)」로 교체하였으나 언어의 변화에 대한 개정이라기보다는 표현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대역도 原刊本の [기별하심 같이]에서 [이르심 같이]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原) われらもあいにて(6-19)

(改) われらもなかにて(6-27뒤)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あい(間)」를 改修本에서 「なか(中)」로 바꾼 것인데 「私たちも間で」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으로 한국어 對譯도 [사이]로 되어 있다. 고대어에서 「あい(間)」가 「あいだ(間)」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2.3 七卷의 대화 장면

7권은 세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壱岐島를 떠나 다음 기항지인 筑前藍島에서 筑前藩主와의 대면하는 장면과 江戸의 사신과의 면담 및 江戸城에서 徳川家光(関白)과의 대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1. 筑前主禮候信使(筑前藩주가 信使에게 예를 갖추는 장면)

- 1-1. 筑前주가 왔음을 통보하는 장면에서의 대화
- 1-2. 筑前使者와 信使의 대화
- 1-3. 筑前使者의 茶盤에 대한 인사

2. 信使接江戸使(江戸의 사신을 만나는 장면)

- 2-1. 筑前使者의 茶盤에 대한 인사
- 2-2. 吉田에서 信使와 對馬島主, 소장로의 대화
- 2-3. 三島에서 江戸使者와의 대화

3. 入江戸見關白(江戸에서 관백(關白)을 알현하는 장면)

- 3-1. 關白이 奉行을 보내 信使 일행의 무사도착을 문안하는 장면의 대화
- 3-2. 島主가 登城 날짜를 통보하는 장면의 대화
- 3-3. 인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지를 논의하는 장면의 대화
- 3-4. 關白과 信使의 대화
- 3-5. 무사히 임무를 마친 것을 축하하는 대화
- 3-6. 奉行의 문안에 대한 信使의 답례

1) (原) さしやうもたせてししやかまいたほとに(7-1/뒤)

(改) しなしなおもたせてししやかまいりましたほとに(7-1/뒤)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ざっしょう(雜餉)」을 改修本에서 「しなじな(品々)」로 바꾼 것인데 「人をもてなすためのご馳走ノ酒肴」의 의미로 사용된 고대어의 「ざっしょう(雜餉)」가 改修本이 쓰여진 18세기 중엽에는 이미 사용되지 않아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해석은 改修本과 重刊本の 색인에 제시된 것처럼 「御しゅうじ(ご祝辞)のため(省略)品々を持たせて」와 같이 풀어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3종 모두 대역은 [차반(茶飯)- 음식]으로 되어 있어 原刊本の 기술 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 (原) ふねもせいいたほとに(7-4)

(改) ふねもせはいいたほとに(7-5뒤/6)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せく(狭く)」을 改修本에서 「せぱい(狭い)」로 바꾼 것으로 사전상의 기술로는 「せく(狭く)」에 [좁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없으나 『日本國語大事典』(小學館)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せく【塞・堰】 水の流れをせき止める。(以下、省略)

(語源説) (1)セ(狭)を活用させた語[國語の語源とその分類=大島正健・大言海]。セマキ(狭)の義【言葉の根しらべ=鈴江潔子】。(以下、省略)

せ【狭】《名》(形容詞「さし(狭)の「さ」と同源、せまい状態をいう語か)せまいこと。せまいさま。(以下、省略)

위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原刊本에 사용된 「せく(狭く)」의 의미가 孤例이기는 하나 당시 [좁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改修本の

「せばい(狭い)」또한 당시 사용된 단어이기에 자료로서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原) かいしょうはるはるのみちに(7-13뒤)

(改) かいりくはるはるのみちに(7-20)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かいしょう(海上)」를 改修本에서 「かいりく(海陸)」로 바꾼 것으로 근세까지 현대어의 「かいじょう(海上)」는 清音인 「かいしょう(海上)」를 사용했던 것은 『日葡辞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ixō 카이샤우 (海上) Vmino vye (海の上) 海の上

3.2.4 八卷의 대화 장면

8권은 세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목적지인 江戸를 떠나 歸路의 과정과 大阪 藍島、對馬島를 거치며 관련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사절에게 제공한 금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내용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 信使不受金(신사가 금화를 받지 않는 장면) 1-1. 回程 길에 江戸 奉行의 전언 장면의 대화 1-2. 奉行이 보낸 돈을 받지 않는 장면의 대화
2. 信使還到大坂城(신사가 오사카성에 돌아오는 장면) 2-1. 大坂에 도착하여 향응을 청하는 장면의 대화 2-2. 藍島 숙소에 島主가 와서 出船日을 통보하고 무사 항해를 축하하는 장면의 대화 2-3. 對馬島 도착을 축하하는 장면의 대화 2-4. 江戸 奉行이 보낸 금을 도주 侍자들에게 주려하나 받지 않고 下船宴을 제안하는 장면의 대화
3. 島主餞宴請鮮樂(對馬島主가 잔치를 베풀며 조선 음악을 청하는 장면) 3-1. 出船日을 알리고 下船宴 날짜를 통보하는 장면의 대화 3-2. 下船宴 3-3. 對馬島主의 배웅하는 장면의 대화 3-4. 對馬島主의 수고를 기리는 장면의 대화

1) (原) へちにしろいたすこともなし(8-3뒤)

(改) へしてつかわすものも御さらす(8-4뒤)

(重) へつしてつかわすものも御さらす(8-4)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べちに」를 改修本에서 「べして」로 重刊本에서 「べっして」로 바꾼 경우로 3語 모두 사용되었던 말들이기에 시기의 차이도 일부 인정되나 改修本과 重刊本の 시기적 차이가 크지 않은 관계로 原刊本과의 시차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¹²⁾

- 2) (原) いちちやうそうならは(8-14)
(改) ひつてうさやう御さらは(8-20뒤)

위의 예는 原刊本の 「いちじょう(一定)」를 改修本에서 「ひつじょう(必定)」로 바꾼 것으로 [かならず]의 의미로 사용되는 副詞의 의미 변화에 의한 교체라 할 수 있다.¹³⁾

이상, 5권에서 8권까지의 대화 주제와 일부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화의 주제는 국가 간의 교류인 관계로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축하연 등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기록인 『增正交隣志』(1802)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拙稿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고대어로부터 근대어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原刊本과 100년 가까운 차이가 나는 改修本과의 언어의 불통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며 副詞에 그러한 실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めす(召す)」 「おちやる」 「ざっしょう(雜餉)」 「せく(狭く)」 「せばい(狭い)」 「かいしょう(海上)」 등 다양한 어휘가 당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자료의 신빙성 문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4. 마치며

일본 江戸時代に 이루어진 朝鮮通信使의 12번에 걸친 방일 중 『捷解新語』의 저자인 康遇聖의 세 차례에 걸친 통신사 수행과 관련한 『捷解新語』 5권에서 8권까지의 대화 주제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중 原刊本과 改修本에서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정의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변화가 인정되거나 격식 차린 말투로 인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捷解新語』 3종의 자료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2) 拙稿(2001a) 「近世日本語の副詞研究 ―「じょうに」「べちに」を中心として―」 『日語日文學研究』 39輯1卷

13) 拙稿(1994) 「「一定」小考」 『湘南文學』 28輯

14) 전게서 7), pp.233-234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7세기 초에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끊임없는 교류 요구와 사절단의 파견, 그리고 朝鮮通信使의 일본방문은 양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였으며 선란우호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 일간의 상호 불신과 이해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小童의 복식과 관련한 요청 사항 등 자세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参考文献】

- 鄭光(1984)「捷解新語의 成立時期에 관한 몇 문제」『牧泉兪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____ (1988)「譯科의 倭學과 倭學書」『韓國學報』第50集
 ____ (1988)『司譯院倭學研究』太學社
 ____ (2004)『역학서연구』J&C
 ____ (2007)「韓國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歴史」『日本文化研究』21輯
 李元植(1984)「朝鮮通信使に隨行した倭學譯官について—捷解新語の成立時期に關する確證を中心に—」
 『朝鮮學報』111
 李康民(1990)「『捷解新語』の成立と表現」『國語國文』60卷 12号
 ____ (1996)「『捷解新語』와 日本語史」『漢陽日本學』4輯, 漢陽日本學會
 ____ (1998)「『捷解新語』의 推量表現」『漢陽日本學』6輯, 漢陽日本學會
 李太永(1997)『譯註捷解新語』太學社
 정승혜(2003)『조선후기 왜학서 연구』太學社
 趙南德(1994)「捷解新語의 改修分析」博而精
 小倉進平(1964)『増訂補注朝鮮語學史』刀江書院(一初版1920年)
 龜井孝(1958)「『捷解新語』小考」『一橋論叢』第39卷 第1号
 ____ (1984)「『捷解新語注音法』—日本語のすがたところ—」『龜井孝論文集』吉川弘文館
 森田武(1952)「『捷解新語の國語について—その資料性の考察—」『國文學攷』復刊第一号
 ____ (1955)「『捷解新語』成立の時期について」『國語國文』24卷 3号
 ____ (1985)『捷解新語攷』『室町時代語論攷』三省堂
 大友信一(1957)「『捷解新語』の成立時期私見」『文芸研究』26
 浜田敦(1970)『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岩波書店
 ____ (1982)『続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臨川書店
 ____ (1990)「國語畧詞の史的 연구」『浜田敦外』新典社
 安田章(1980)『朝鮮資料と中世國語』笠間叢書
 ____ (1990)『外國資料と中世國語』三省堂
 ____ (1996)『國語史の中世』三省堂
 ____ (2000)「『捷解新語』の重要性」『日本學報』44輯
 ____ (2006)「復権康遇記：韓國人の遺した日本語史文獻」『日語日文學』32輯
 中村榮孝(1961)「『捷解新語』の成立改修および『倭語類解』成立の時期について」『朝鮮學報』第19輯
 李進熙(1992)『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講談社學術文庫

- 仲尾宏(1997)『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岩淵悦太郎(1997)『康遇聖の捷解新語』『國語史論集』筑摩書房
 辛基秀(2002)『新版朝鮮通信使往来』明石書店
 拙稿(1993a)「『すなはち』小考」『湘南文學』27輯
 ____ (1993b)「『捷解新語』の副詞小考」『韓日問題研究』創刊號
 ____ (1994)「『一定』小考」『湘南文學』28輯
 ____ (1996a)「『かゝて』について」『日語日文學研究』29輯
 ____ (1996b)「『捷解新語』の副詞小考2」『韓日問題研究』4輯
 ____ (1997)「『捷解新語』の副詞小考3」『人文論叢』5輯, 京畿大學校 人文大學
 ____ (1999a)「近世日本語研究資料としての捷解新語: 副詞研究における資料性の考察」『京畿大學校 論文集』43輯
 ____ (1999b)「近世副詞小考一「そつ」を中心として」『日本語文學論叢』柏原司郎先生定年記念論集
 ____ (2000)「副詞「しかしか(と)」小考」『湘南文學』34輯
 ____ (2001a)「近世日本語の副詞研究 一「じょうに」「べちに」を中心として」『日語日文學研究』39輯 1卷
 ____ (2001b)「近世日本語副詞の通史的考察 一「いかさま」を中心に」『日本語學研究』4輯
 ____ (2003a)「副詞「するする」「そうじて」小考」『日本學報』55輯 1卷
 ____ (2003b)「副詞「けっく」小考」『日語日文學研究』47輯 1卷
 ____ (2003c)『捷解新語』の副詞研究(J&C)
 ____ (2004)「副詞「ていと(ど)」について」『湘南文學』38輯
 ____ (2005)「『捷解新語』の副詞研究一「いちえん」「いっせつ」を中心に」『日語日文學研究』53輯 1卷
 ____ (2007)「『捷解新語』の語彙考」『日本近代學研究』15輯
 ____ (2008)「副詞「ちと」について」『日語日文學研究』65輯 1卷
 ____ (2009)「副詞「げに(も)」小考」『日本語學研究』25輯
 ____ (2010)「副詞「なんと」について」『日本語學研究』29輯
 ____ (2012)「副詞「ほどなく」について」『日語日文學研究』81輯 1卷
 ____ (2016)「副詞「したい」の意味用法の変遷について」『日本近代學研究』54輯
 ____ (2017)「『捷解新語』の言語研究資料としての価値について」『日本近代學研究』58輯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8월 03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要旨>

朝鮮通信使와 『捷解新語』

박재환

본 연구는 17세기 중엽에 간행된 『捷解新語』에 나타난 朝鮮通信使의 訪日 기록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는 저자 康遇聖의 3차례(1617년, 1624년, 1636년)에 걸친 통신사 수행 경험이 『捷解新語』의 성립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5-8권의 내용은 국가 간의 교류인 관계로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축하연 등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고대어로부터 근대어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原刊本과 100년 가까운 차이가 나는 改修本과의 언어의 불통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 副詞 이외에 「めす(召す)」 「おぢやる」 「ざっしょう(雑餉)」 「せく(狭く)」 「せばい(狭い)」 「かいしょう(海上)」 등 다양한 어휘가 당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通信使와 일본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교류의 단면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대화에 나타난 당시 사용되었던 어휘들에 대해서도 통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捷解新語』 3종의 자료적 신빙성도 입증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Study on envoy of the Chosun Dynasty and [Chop Hae Sin O]

Park, Jae-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ecord of envoy of the Chosun Dynasty visit to Japan, which was published in the mid-17th century, which confirmed that Kang Woo-sung's experience in carrying ou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ver three times (1617, 1624 and 1636) was deep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hop Hae Sin O].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s of volumes 5-8 are mainly related to official events such as ceremonies and celebrations to greet envoys because they are exchanges between countries. The biggest part is the lack of language communication with 原刊本 to 改修本, which was creat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ancient to modern languages, which is almost 100 years apart. In addition to Adverb, it has been confirmed that various vocabulary words such as 「めす(召す)」 「おぢやる」 「ざっしょう(雑餉)」 「せく(狭く)」 「せばい(狭い)」 「かいしょう(海上)」 were used at that time.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cross-section of exchanges through conversations between envoy of th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officials, and were able to specifically consider the vocabulary used in their conversations from a common point of view. Ultimately, this study proved the data credibility of the three [Chop Hae Sin O] species and it is hoped that it will be used in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